

국어 교과에서 한문고전의 수록 변천과 교육적 함의

— 제2차, 2009개정 고전 과목에 수록된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

최 창 현*

<目 次>

- | | |
|------------------------|------------------------|
| I. 서론 | III.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유학의 |
| II. 제2차 교육과정에서 유학의 수록과 | 수록과 중심사상 |
| 중심사상 | 1. 다시 수록된 유학사상 |
| 1. 유학사상의 수록과 변화 이유 | 2. '지금-여기'에서 유학사상의 |
| 2. 존재의 도덕적 자기수양 | 재평가와 적용 |
| | IV. 결론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어 교과에서 한문고전인 유학사상의 수록 변천과 교육적 함의를 고찰한 논문이다. 국어 교과에서 전통의 유학사상은 단절과 계승의 부침을 겪었다. 유학사상은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대략 36년간 수록되지 않았다. 본고에서 그 원인을 제3차 교육과정부터 한문 교과의 성립, 한국적인 민족문화의 지향, 대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유학 가치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서구 가치의 도입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유학사상이 36년의 시간이 흐른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다시 수록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경제 성장을 제1목표로 질주하던 산업화 과정의 결과, 우리 사회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반인륜적인 사회 문제가 대두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반인륜적인 여러 사회 문제

* 상지대학교 조교수 / choital@hanmail.net

를 해결할 인간성의 회복은 제도권 교육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가치의 변화는 과학주의와 실용주의 일변도에 대한 교육의 자기반성이기도 하다.

2009개정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사상은 제2차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것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제2차에서는 유학에서 가르치는 ‘효’ 사상을 바탕으로 도덕적 자기 수양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2009개정에서는 ‘인간의 본성 [仁義禮智]’을 중심으로 유학사상을 재해석하거나 평가하여 적용하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될 2015개정 교육과정에도 ‘고전읽기’가 선택 과목으로 설정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의 계승이라는 테제는 유학 사상의 현대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유학이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철학적 반성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사상으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개정 고전 교과서가 보여준 ‘지금-여기’에서 유학 사상 적용의 실체는 유학의 현대화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주제어】 유학사상, 전통, 효, 인간의 본성, 유학의 현대화

I. 서론

우리의 전통은 현대성 속에 여전히 존재하며 직간접적으로 일생 생활에서 규범이 되며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문화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까지 다양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문화는 일련의 행위체계로 핵심은 전통 관념으로부터 유래되며, 특히 가치체계로 구성되어 있다.¹⁾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유학이 조선 시대에서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사상이 되었다. 우리의 전통으로 계승되던 유학 사상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구 문명과 충돌하면서 중심에서 변두리로

1) 위잉스 지음, 김병환 옮김,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동아시아, 2007, p.16.

물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1980년대 하와이대 동서센터에서 실시한 ‘현대사회의 유학가치’라는 조사에 의하면 동아시아에서 서울의 유학가치가 가장 완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일본과 홍콩, 타이베이와 청푸의 순이었다.²⁾ 이 조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이 유학사상을 가장 완전한 모습을 유지한다는 사실보다 동아시아에서 유학사상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현대화 과정은 서양적 기본 가치의 수용과 동화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 사상으로 계승되던 유학은 제도권 교육이 지향한 가치의 변화에 의해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문화의 가치체계는 구체적 형태를 갖추게 되는 역사 단계에서 형성된 것³⁾들인데, 그 의미 속에는 지속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붙게 된다. 전통의 지속 가능성은 ‘지금-여기’에 살고 있는 생활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한 시대를 풍미한 선인들의 사상일지라도 현대인들의 사상·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그 사상은 약화되거나 박물관의 역사물로 비치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시대의 사상, 관습 등의 양식에는 항상 ‘오래된 미래’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전승 방식에서 교육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대상은 일정 기간의 성장과정에 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교육 내용은 교육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권위 있는 국가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가치를 선별하여 교육과정에 담고, 그 가치는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르쳐진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래로,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열 번의 개정을 하였다. 교육과정의 개편은 시기마다 교육 철학의 이념과 지향점, 교육 사조의 변화, 국가의 교육 정책,

2) 뚜웨이밍 지음, 김태성 옮김, 『문명들의 대화』, 휴머니스트, 2006, pp.248-249.

3) 위잉스, 앞의 책, p.173.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요구, 정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사회 변혁에 영향을 받았다.

국어교육 변천 과정에서 유학사상의 수록은 부침을 겪었다. 유학 사상은 제1·2차 국어 과목과 제2차 고전 과목⁴⁾에 수록되었다가, 제3차 교육과정부터 국어 교과에서 유학사상은 전면적으로 자취를 감췄다. 제3차 교육과정이 1973년에 공포되었는데, 유학사상은 대략 3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공포된 2009개정 선택 교육과정인 고전에 다시 수록되었다.

본고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서 유학사상의 수록 변화와 이유, 그리고 각 시기의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려는 논문이다. 이 과제는 국어과 내에서 유학사상의 변모를 드러내어 밝히는 연구로는 처음 시도된 논문이다. 연구 결과로 유학사상의 교육적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학사상의 현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늠할 수 있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유학사상의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제2차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발간된 고전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는다. 본고의 논의 전개는 제2장에서 제2차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의 중심사상과 제3차 교육과정부터 국어 교과에 유학사상이 수록되지 못한 이유를 고찰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의 중심사상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유학의 현대화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제1·2차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사상을 제외한 이유는 고전 교과서와 그 내용이 겹

4)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史에서 유학사상은 주로 문학 과목에 수록되었다. 문학 과목이 성립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제2·3차는 『고전』, 제4차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제5차에 비로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통합된 『문학』 과목이 성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2·3차 교육과정 시기의 『고전』 과목이 국어의 심화 과정인 문학 과목의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줄고, 「고등학교 문학 교육 형성의 역사적 연구 - 교수요목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문학 영역 및 문학 과목의 내용 변모를 중심으로」(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을 참조.

치고⁵⁾, 특히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은 諺解에 방점을 두어 국어의 변천사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⁶⁾로 두었기 때문이다.

II. 제2차 교육과정에서 유학의 수록 변화와 중심사상

1. 유학사상의 수록과 변화 이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유학은 동아시아의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윤리, 가족의 가치를 규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체계였다.⁷⁾ 우리의 교육과정 변천사에서 유학사상은 제1·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수록되었다가, 제3차 이후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은 5.16군사정변으로 출범된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이 반

5) 유학사상은 『고등국어Ⅲ』(제1차)와 『국어Ⅲ』(제2차)에 수록되었다. 두 시기의 대단원은 “우리말과 글의 옛 모습”에 소단원 “1.훈민정음, 2.용비어천가에서, 3.두시언해에서, 4.소학언해에서”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고등국어Ⅲ』에 수록된 유학사상은 “4.소학언해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立敎에서 4개의 장, 明倫에서 2개의 장, 敬身에서 1개의 장으로 모두 7개의 장이다. 『국어Ⅲ』에서는 『고등국어Ⅲ』에 수록된 입교에서 2개의 장이 줄어 든 것을 제외하면 모든 내용은 동일하다. 본고에서 고전 교과서에 빠진 내용은 필요에 따라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겠다.

6) 제1·2차 국어 교과서에 학습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힘 문제를 통해 단원 학습 목표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두 시기의 익힘 문제는 동일하다.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소학언해를 학습한 후의 익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이글 가운데서 현대어에 ‘ㅈ·ㅊ’으로 변해 버린 ‘ㄷ·ㅌ’ 소리의 낱말을 찾아내라. 그 낱말에 있어서 ‘ㄷ·ㅌ’이 어떠한 조건 밑에 놓이어 있는가를 자세히 따지어 보라. / 2.이 글에서 ‘ㅣ’가 쓰인 낱말을 모아서, 어떠한 경우에 쓰여있는가를 조사해 보라. / 3.이 글 가운데 쓰인 ‘사이’ ㅅ을 모아서 각각 어떠한 뜻이 있는가 살펴보라.(문교부, 『고등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단기 4292년, p.107.)

7) 뚜웨이밍 지음, 김태성 옮김, 앞의 책, p.342.

영되어, 제1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지 8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1963년 2월 15일에 문교부령 제12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Ⅰ과 국어Ⅱ로 구분하였는데, 국어Ⅱ는 국어Ⅰ를 심화 확충한 것이다. 국어Ⅱ는 현대문, 고전(국어, 국문학), 문법, 작문의 과정과 한문 과정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은 고전 과정과 한문 과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두 과정의 체계는 “(1)의의와 목표, (2)지도 내용, (3)지도상의 유의점, 참고자료”로 구성되었다. ‘참고자료’⁸⁾에서 『고전』 과목에 수록할 자료를 ‘한민족의 손으로 된 서적’(중국인)과 ‘우리 민족의 손으로 된 서적’(한국인)으로 구분하여 지침을 제시하였다. 결국 고전을 학습함으로써 한학이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과 동아시아 속의 민족 문화의 특질을 이해시키려 했다.⁹⁾ 이러한 의도는 한문 과정의 의의¹⁰⁾와 목표¹¹⁾, 지도 내용¹²⁾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2차 교육과정의 고전 교과서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출간되었

-
- 8) 한문 지도의 자료는 실로 방대한 것이나, 가장 중요한 부록만을 추려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1.한민족의 손으로 된 서적 (1)경서:사서, 오경 등 (2)사서:24사 자치통감, 18사략, 전국책 등 (3)子書:장자, 순자, 한비자, 淮南子, 管子, 說苑 등 (4)명가의 산문:당송 팔대가문, 駢儷文 등 (5)전기 소설류:전기 소설, 삼국지 등 (6)기타의 산문:蒙求, 소학, 근사록, 공자가어 등 (7)고금의 유명한 시집:당시, 기타 (8)병서류 2.우리 민족의 손으로 된 서적 (1)사서:삼국사기, 삼국유사, 東史綱目, 고려사, 증보 문헌비고, 사천년 문헌통고, 이조실록 등 (2)기타 산문:해동 소학, 동몽선습, 지봉유설, 동문선 등 (3)각종 문집:정포은집, 퇴계전집, 율곡전집, 우암집, 연암집 등 (4)시:대동시선 등.(본고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은 NCIC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인용하였다.)
- 9) 고전 과정의 의의는 국어와 국문학의 변천 및 현대 언어와 문학과의 관련성을 알림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한다.
- 10) 중학교에서 학습한 한자 및 한자어 지식을 기초로 하여, 평이한 산문류, 서서류, 시가류 및 경서류를 과하여, 한학 특유의 취의를 파악하게 하고, 한학이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과 동양 문화의 연원을 인식하여, 건실한 인격 도야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 11) 한학이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과 동양 문화의 특질을 이해시킨다.
- 12) 한학과 국문학과와의 관계를 알게 한다./ 한학과 동양 문화와의 관계를 알게 한다.

는데, 필자는 인문계 고전 교과서 9종을 확인하였다.¹³⁾ 고전의 교과서명은 『고전』, 『모범 고전』, 『우리 고전』 등으로 출간되었다. 9종의 고전 교과서 중에서 유학사상은 5종에 수록되었는데, 그 내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 제2차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사상

구분	小學				論語					孟子
	立教	明倫	稽古	善行	學而	爲政	述而	泰伯	子罕	盡心(上)
문호(김)	2									
법문(이)	2	1			2	1	1		1	2
동아(이)		4	1							
일한(이)				3						
영지(임)					3	1		2		

<표1>에 제시된 유학 내용은 고전 교과서에 諺解와 원문이 동시에 수록되었다. 고전 교과서에 유학 내용이 언급된 횟수는 소학 13회, 논어 11회, 맹자 2회이다.

제2차 교육과정까지 제도권 교육에서 유학사상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해 無理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 범주에 한자 및 한학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으며, 당시의 교과서 집필진들은 우리 사회에서 한문에 관한 높은 수준의 소양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었다. 그런데 제3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이 공포될 때까지, 대략 36년 동안 왜 국어 교과에서 유학 사상은 사라졌을까?

첫째, 제3차 교육과정부터 한문 교과가 국어 교과에서 분리 독립하였

13) ①김기동·정주동·정익섭, 『고전』, 교학사, 1975. ②김성재, 『모범고전』, 일지사, 1968. ③김윤경, 『고전』, 문호사, 1968. ④박병채, 『우리고전』, 박영사, 196*. ⑤이용주·구인환, 『고전』, 법문사, 1968. ⑥이승녕·남광우, 『고전』, 동아출판사, 1975. ⑦이재수·서수생, 『고전』, 일한도서출판사, 1967. ⑧임현도, 『모범고전』, 영지문화사, 196*. ⑨한원영, 『고전』, 삼화출판사, 1968.(밑줄 친 고전 교과서에 유학 사상이 수록되었다.)

다. 제2차 교육과정까지 한문 문학의 위치(position)는 국어 I 에서 읽기 영역의 고전학습으로, 국어 I 이 심화 확장된 국어Ⅱ의 고전 과정과 한문 과정에서 기술되었다. 한문 교과가 성립됨으로써 제3차의 『고전』, 제4차의 『고전문학』 교과서에 유학사상은 한 편도 수록되지 않았다.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상에서 민족문화의 개념이 한국적인 민족문화로 범주가 재설정 되었다. 여기서 민족문화는 언어를 바탕으로 한 민족문화를 가리킨다. 일제강점과 광복, 한국전쟁을 통과하며 과거 선조로부터 상속된 유산을 회복하여 재배치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공감대로서의 민족문화는 우리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제도권 교육에서의 민족문화 형성과 발전에 관한 내용은 언어 교육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 민족의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고 문화 속에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 민족의 전통적인 관습, 가치관, 제도나 일상적인 생활 습관 등을 포괄한 문화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¹⁴⁾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상에서 국어와 국어로 표현된 문화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를 넓게 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¹⁵⁾하도록 한 목표 설정에서 유학사상은 언어 민족주의 잣대로 인해 국어 교과에서 배제되었다.

셋째, 대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유학의 가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중국은 아편전쟁(1차:1839~1842, 2차:1856~1860)과 5·4운동(1919), 문화대혁명(1966~1976)을 겪으면서 유학은 주류 학문에서 갑자기 주변화 되고 심지어 철저히 해체되어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¹⁶⁾ 서양의 추상화·이론화·논리화라는 외재적 계통의 사상이 실체적이고 인생문제를 다룬 내재적 계통의 동아시아 사상을 대체하게 되었다.¹⁷⁾ 공자의 나라 중

14) 줄고, 「교수요목기의 민족문화 형성과 발전 - 국정중등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3, 2016, pp.32-33.

15) 제3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16) 뚜웨이밍, 앞의 책, p.242.

17) 이러한 지적이 가능한 이유는 공부의 대상이 동아시아와 서양이 근본적으

국에서 유학이 배척되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상반된 견해는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 작동하던 유학의 가치체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전통으로 계승되던 유학사상을 버리고, 서구 세계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여 그들과 동질화 되려는 과정을 겪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1968년 국민교육헌장, 1969년의 3선 개헌, 1971년의 대통령 선거와 비상사태선포, 1972년의 유신헌법 제정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국어 교육과정의 방향은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전체 분위기를 결정지었다. 제3차 교육과정의 제재 선정의 기준에서 “새마을 운동의 전개, 유신 과업의 수행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이를 선도하려는 태도를 기름에 도움이 되는 것.”¹⁸⁾을 국어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 과정에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에 몰두함으로써 전통적인 유학 사상은 배제되었다.

2. 존재의 도덕적 자기수양¹⁹⁾

제2차 교육과정의 고전 교과서의 유학사상은 『소학』²⁰⁾, 『논어』, 『맹자』

로 다르다는 점이다. 내항문화는 인문영역 안의 문제에 치중하고 외항문화는 인문영역 밖의 자연이나 혹은 그 이상의 종교적 문제에 치중한다. 여기서 동아시아가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한 원인이 문화적 배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위잉스, 앞의 책, pp.90-91)

18) 제3차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19) 제2차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소학』, 『논어』, 『맹자』의 단원 구성을 고려할 때, 유학사상의 내용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것보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두시언해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세 언어를 익히는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리의 중세 언어를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유학사상이 자연스럽게 전이되고 내면화 된다는 측면에서 수록된 유학사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 중심으로 인간성과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의 도덕적 함양을 위한 자기수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었다. 여기서 자기수양이란 자기의 감정과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여 외부 세계에 자기를 개방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²¹⁾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의 가르침을 가려내면孝와 교육[敎, 學, 習], 交友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유학의 본질은 너무나 평범한 것, 유학이라는 말만 들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孝弟의 윤리에 있다. 효제의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유학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²²⁾ 『周禮』에 大司徒가 백성을 여덟 가지 형벌²³⁾로 糾察하였는데, 그 첫째가 불효하는 형벌이었다. 공자는 효의 시작과 끝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孔(孔子)ㅣ 증(曾子) 드려 닐러 글으샤되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슬흔 부모(父母)의 밋즌은 거리라. 감(敢)히 혈위 상히오디 아니홈이 효도의 비르습이오, 몸을 세워 도(道)를 행(行)하야 일홈을 후세(後世)에 배퍼 써 부모(父母)를 현더케 홈이 효도의 으뜸이니라.²⁴⁾

孔子謂曾子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20) 중국 송나라의 劉子澄이 주희의 가르침으로 지은 초학자들의 수양서. 소학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성을 구체적·현실적·실천적 지향으로 추구했다. 이런 소학은 사서오경에 버금가는 텍스트로 취급 받기도 했지만,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그 위상은 불안정했다.(정출현, 「소학을 통해 읽는 유교문명의 완성 과 해체」, 『율곡학연구』 33, 2016, p.300)

21) 뚜웨이밍 지음, 정용환 옮김, 『뚜웨이밍의 유학 강의』, 청계, 1999, p.117. 위잉스는 자아수양의 최종 목적을 인륜질서와 우주질서의 포섭적 화해 속에서 자아를 구하는 것으로 보았다.(위잉스, 앞의 책, p.136)

22) 최진덕, 『인문학, 철학, 그리고 유학』, 창비, 2004, p.206.

23) 以鄉八刑糾萬民 一曰不孝之刑 二曰不睦之刑 三曰不嫗之刑 四曰不弟之刑 五曰不任之刑 六曰不恤之刑 七曰造言之刑 八曰亂民之刑(김윤경, 『고전』, 문호사, 1968, pp.100-101) 본고에서 인용된 유학사상의 출전은 수록된 고전 교과서로 표시한다.

24) 이용주·구인환, 『고전』, 법문사, 1968, p.98.

以顯父母 孝之終也

위의 장은 『소학』의 「명륜」에서 발췌한 것으로 공자가 증자에게 효에 대해 말한 내용이다. 효는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와 모발과 살을 헐어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고,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증자는 병환 중에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증자(曾子) | 병(病)이 계사 문대자(門弟子)를 불러 고평샤되, 내 발을 계(啓)하며 내 손을 계(啓)하며 내 손을 계(啓)하라. 시(詩)에 닐으되 전전(戰戰)하며 궁궁(兢兢)하야 깊은 못을 지나듯하며 얇은 얼음을 밟듯하다 하니, 이제 후(後)에야 내 면(免)함을 알과라 소자(小子)야.²⁵⁾

曾子有疾 召門弟子曰 啓豫足 啓豫手 詩云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而今而後 吾知免夫 小子

위의 장은 『논어』의 「태백」에 있는 내용이다. 증자는 제자들에게 이 불을 헤쳐 자신의 손발을 보이며,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가 毀傷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인 효를 행하기 위해 깊은 못에 임한 듯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두려워하고[戰戰] 경계하고 삼갔다[兢兢]. 증자에게 효의 실천은 일생을 통해 한 순간도 놓을 수 없는 자기수양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曾子子 | 고평샤되, 孝 효자(子)의 늘그시니 치기는 그 마음을 즐기식 하며, 그 뜰을 어그릇디 아니하며, 그 귀눈에 즐거우시게 하며, 그 자시며 겨샤를 편안히시게 하며, 그 飲음食식으로 뼈 통성도이 치느니라. 이런 故고로 父부母모의 사랑하시느 바를 또 사랑하며, 父부母모의 공경하시느 바를 공경홀디니, 개

25) 임현도, 『모범고전』, 영지문화사, 196*, p.93.

며 물게 내려도 다 그리홀 거시온, 홀물며 사름애싸녀²⁶⁾

曾子曰 孝子之養老也 樂其心 不違其志 樂其耳目 安其寢處 以其飲食忠養之是故 父母之所愛 亦愛之 父母之所敬 亦敬之 至於犬馬 盡然而況於人乎

또한 증자는 효자가 늙으신 부모께 평소의 생활에서 행해야 할 실천 내용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뜻을 어기지 않으며, 귀와 눈을 즐겁게 하며, 잠자리와 거처를 편안하게 하며, 음식으로 정성껏 봉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자의 덕목들은 인간으로서 스스로 지키고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만약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개나 말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曲禮禮예에 글오되, 물읏 사름읏 즈식 되연는 禮례는 겨을히어든 드스시게 호고 녀름이어든 서늘히시게 하며, 어을미어든 定定하고 새박이어든 스편며, 나 갈 제 받드시 열즈오며 도라옴에 받드시 뵈오오며, 돈니는 브를 받드시 덜덜홀 덕을 두며, 니기는 바를 받드시 소업을 두며, 상렛말에 늘고라 일콘디 아니롤디 니라.²⁷⁾

曲禮曰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清 昏定而晨省 出必告 反必面 所遊必有常 所習必有業 恒言不稱老

禮禮記기에 글오되 아비 命명하야 브르거시든 썰리 되답호고, 諾락디 아니하야 손에 일을 잡앗거든 더디며, 밥이 입에 잇거든 비완고, 드름으로 가고 즈조 거를만 아니 홀디니라. 어버이 늘그시거든 나가매 방소를 맞고디 아니하며, 도라옴에 빠를 넘우디 아니하며, 어버이 병하얏거시든 늦빋줄 퍼디 아니홈이 이 孝효자즈읏 소략흔 례절이니라. 아비 업스시거든 춤아 아비척을 넓디 몸홈은 손킴이 이실시며, 엄이 업스시거든 잔과 그릇슬 춤아 먹디 몸홈은 입킴 씩읏이

26) 이승녕·남광우, 『고전』, 동아출판사, 1975, p.196.

27) 이승녕·남광우, 앞의 책, p.195.

이실식니라.²⁸⁾

禮記曰 父命呼 唯而不諾 手執業則投之 食在口則吐之 走而不趨 親老出不易方 復不過時親癢 色容不盛 此孝子之疎節也 父沒而不能讀不之書 手澤存焉爾 母沒而杯圈 不能飲焉 口澤之氣 存焉爾

『소학』에는 효의 실천 방법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detail]으로 기술되어 있다. 위 두 인용문은 『소학』의 「명륜」에 수록된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효를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부모가 부르면 일을 하는 중이라도 일감을 놓고 혹은 음식이 입에 있으면 뱉고, 빨리 대답하고 달려가야 한다. 외출을 하더라도 부모께 말씀드린 장소를 변경하지 말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장소를 바꾸면 부모가 자기를 부를 적에 소재지를 알지 못할까 염려해서요, 시기가 지나면 기일을 놓쳐 부모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해서이다.²⁹⁾ 만약 부모가 병이 있으면 부모 앞에서 얼굴 모양을 혈기왕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모의 잠자리와 거처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피야 한다.

즈(子)ㅣ 골으샤되 데즈(弟子)ㅣ 드러는 효(孝)호고 나느 데(弟)호며 근(謹)호며 신(信)호며 너비 중(衆)을 애(愛)호되 인(仁)을 친(親)홀띠니, 행(行)홈에 남은 힘이 있거든 곧 써 글을 학(學)홀띠니라.³⁰⁾

孔子曰 弟子 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밑줄은 필자)

28) 이승녕·남광우, 앞의 책, pp.195-196.

29) 성백효 역주, 『소학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4, p.93.

30) 임현도, 앞의 책, p.92.

위의 장은 『논어』의 「학이」에 나오는 말로, 공자는 제자에게 집에 들어가는 것은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恭遜하라고 말한다. 이를 보아 유학의 핵심적인 윤리가 孝弟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제는 행실을 삼가고 말을 미덥게 하며, 널리 여러 사람을 사랑하되 仁한 자를 가깝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제를 행한 후에 여가를 써서 글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程子は 이 문장에 대해 “제자가 된 직분은 힘이 남음이 있으면 글을 배우는 것이니, 그 직분을 닦지 않고 문을 먼저 함은 爲己의 學文이 아니다.”³¹⁾라고 주석을 달았다.

유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教, 學, 習으로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다. 教는 스승이 성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學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고, 習은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김하며 스스로 터득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맹(孟子)子ㅣ 食邑사되 사람이 道ㅣ 이스되, 먹기를 빅불니 ㅎ며 옷을 더웁게 ㅎ야 편안이 잇고, ㅁ르침이 업스면 곧 증승에 갓가오릴시 聖人이 근심함을 무사 契로 히여곰 司徒를 히이샤 ㅁ르치되 人륜(倫)으로써 ㅎ시니 아비와 아들이 親함이 이시며 다투고 신하ㅣ 義ㅣ 이시며, 남편과 계집이 분별이 이시며 일운과 저무니 차례 이시며 벗이 밋봄이 이심이니라.³²⁾

孟子曰 人之有道也 飽食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 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밑줄은 필자)

위의 장은 『소학』의 「입교」에 나오는 맹자의 말이다. 맹자는 사람에게 道가 있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어 편안히 살기만 하는 욕망에 의해 道가 가려져 금수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륜을 가르쳐야[教] 한다. 이에 朱子は “사람에게 도가 있다

31) 程子曰 爲弟子之職 力有餘則學文 不修其職而先文 非爲己之學(성백효,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5, p.37)

32) 김윤경, 『고전』, 문호사, 1968, p.100.

는 것은 사람이 모두 秉彝의 性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이 없으면 또한 放逸하고 怠惰하여 이것을 잃는다.”³³⁾ 따라서 敎는 사람이 타고난 性이 방탕하게 놀거나 게으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을 막고 사람의 도리로 이끌어 안내하는 것이다.

제자직(弟子職)에 곁오되, 선생(先生)이 가르치실 배프거시든, 데(弟子) | 이에 법 바다 온화하며 공손하야 스스로 허심하야 비오는 바를 이에 극진히 홀띠니라. 어딘 일을 보고 조처며 맞당흔 일을 드러든 형하며 온공하며 유화하며 효도하며 공순하야 교만하야 힘을 믿디 마를띠니라. 뜯을 거죽 되고 사곡히 말며, 형실을 반드시 정(定)하고 곧게 하며, 놀며 이심을 던던흔 곳을 두되 반드시 덕(德)을 둔는 덕 나아갈띠니라. 늦빚출 정제(整齊)하면 속 막음이 반드시 공경하느니, 일 날고 밤 들거든 자, 옷과 썩를 반드시 정제홀띠니라. 아침의 더 비하고 나조히 니겨 막음을 적게 하야 공경홀띠니, 이에 혼글마티 하야 게을리 아니홀이 이 날은 비호는 법이니라.³⁴⁾

弟子職曰 先生施教 弟子是則 溫恭自虛 所受是極 見善從之 聞義則服 溫柔孝弟 毋驕恃力 志毋虛邪 行必正直 游居有常 必就有德 顏色整齊 中心必式 夙興夜寐 衣帶必飭 朝益暮習 小心翼翼 一此不懈 是謂學則(밑줄은 필자)

위의 장은 『소학』의 「입교」에 나오는 말로, 「弟子職」은 管仲이 지은 『管子』의 편명이다. 위의 내용은 스승의 가르침[敎]에 제자가 배우고 [學] 익히는[習] 법에 대해 말한 것이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극진히 해야 한다.[所受是極] 여기서 ‘極’은 ‘극진하다, 지극하다, 다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스승의 가르침을 극진하게 하려면 스스로 되새기며 그 뜻을 궁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내적으로 熟成시켜서 몸에 體得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여기서 極은 ‘習’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아침에 배

33) 人之有道 言其皆有秉彝之性也 然無敎 則亦放逸怠惰而失之(성백효,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8, p.227)

34) 이용주·구인환, 앞의 책, pp.97-98.

우고 저녁에 그 내용을 생각하며 익히는 것이다.[朝益暮習] 공자가 말한 “배우고[學]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習] 기쁘지 않겠는가.”³⁵⁾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자는 의식주에 구애되지 않고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바로잡으면 배움[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君子³⁶⁾라고 했다. 군자는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공자는 배움의 대상에 대해서 성인이나 군자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나름의 배울 점이 있음을 말한다. 좋은 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배우고, 좋지 못한 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나의 허물을 바로잡아야 한다³⁷⁾고 가르치고 있다.

증자(曾子) | 글으 사디, 내 날로 세 가지로 내 몸을 슬피노니, 사람을 위(爲)하야 모(謨)흠에 충(忠)티 못흔가, 봉우(朋友)로 더브러 교(交)흠에 신(信)티 못흔가, 전(傳)코 습(習)디 못흔개니라.³⁸⁾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밀줄은 필자)

『논어』의 「학이」에 나오는 말로, 증자는 날마다 세 가지[忠·信·習]로 자신의 몸을 살폈다. 그 하나가習인데, 스승으로부터 배운[學] 내용을 매일 스스로 음미하고 궁구하여 자기 몸에 익숙히 하는 것을 성찰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交友에서의 성실함[信]이다. 벗과 사귄데 항상

35)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임헌도, 앞의 책, p.91)

36) 孔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문교부, 『국어Ⅲ』, 1968, p.105) 군자는 기본적으로 6예를 습득한 ‘사’의 단계를 뛰어넘어 고등학문인 시·서·예·악의 학문을 닦아 이를 실천에 옮기는 자를 뜻한다.(신동준, 『공자의 군자학』, 인간사랑, 2006, p.27)

37) 子曰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이용주·구인환, 앞의 책, p.100)

38) 임헌도, 앞의 책, p.91.

성실했는가를 성찰하였다.

유익한 이 세 가지 얻이오, 해로운 이 세 가지 얻이니, 벗이 直덕한 이를 벗
하며, 신실한 이를 벗하며, 들은 것 한 이를 벗하면 유익하고, 거동만 나쁜 이를
벗하며, 아당하기 잘하는 이를 벗하며, 말슴만 나쁜 이를 벗하면 해로운이라.³⁹⁾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공자는 유익한 벗과 손해되는 벗을 각각 세 가지로 말했다. 벗이 곧으면 자신의 허물을 들을 수 있고, 벗이 성실하면 誠實함에 나아가고, 벗이 건문이 많으면 지혜가 밝아짐에 나아가게 된다. 便은 익숙함이다. 便辟은 威儀에만 익숙하고 곧지 못함을 이르며, 善柔는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데만 잘하고 성실하지 못함을 이르며, 便佞은 말에만 숙달하고 건문의 실체가 없음을 이른다. 이 세 가지의 손해됨과 유익함은 서로 正反對가 된다.⁴⁰⁾

이 장에서는 제2차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교과서에 담긴 유학 사상은 주로 孝, 교육[敎, 學, 習], 交友에 관련되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의 내용을 학습한 뒤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묻는 ‘익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익힘 문제를 통해 해당 내용의 교수-학습 목표와 수록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논어에 비친 가르침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조사해 보자.
2. 논어와 함께 중국의 四書로 전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3. 윗글에 ‘丨’가 쓰인 것으로 보아 어느 경우에 쓰였는지 알아보자.⁴¹⁾

39) 문교부, 앞의 책, p.219.

40) 友直則聞其過 友諒則進於誠 友多聞則進於明 便習熟也 便辟 謂習於威儀而不直 善柔 謂工於媚悅而不諒 便佞 謂習於口語而無聞見之實 三者損益 正相反也(성백효, 앞의 책, p.473)

41) 임현도, 앞의 책, p.93.

위에 인용된 익힘 문제는 『논어』의 내용과 이해 당시의 문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익힘 문제는 유학 사상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유학사상이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유의미하게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III.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유학의 수록과 중심사상

1. 다시 수록된 유학사상

제3차 교육과정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대략 36년간 국어 교과에 유학 사상은 수록되지 않았다. 앞에서 그 이유를 한 문 교과의 성립과 한국적인 민족문화의 지향, 그리고 대외적인 유학사상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그 원인으로 살폈다.

그런데 2009개정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인 『고전』 과목에 유학 내용이 다시 수록되었다. 교육과정상에서 고전 과목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고전을 제재로 한 통합적인 국어 활동을 통해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수준 높은 국어 능력을 심화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국어』와 『국어 I』, 『국어 II』를 심화·발전시킨 과목이며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의 통합적 성격⁴²⁾을 갖고 있다.⁴³⁾

고전 과목의 목표는 “①고전의 가치와 고전을 통한 국어 능력 심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②다양한 고전을 제재로 한 국어 활동을 통하여 교양을 형성하고 교양인으로서의 국어 능력을 심화한다. ③고전과의 소통

42) 2009개정 고등학교 고전 교육과정

43)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가 선택과목으로 설정되었다.

을 생활화하여 교양을 쌓고 수준 높은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삼았다.

고전의 내용 체계는 고전의 가치, 고전의 탐구, 고전과 국어 활동, 고전에 대한 태도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 내용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2009개정 고전 영역의 내용 체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2> 2009개정 고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고전의 가치	·고전의 본질과 가치/ ·고전을 통한 교양 형성/ ·고전에 바탕을 둔 국어 활동
고전의 탐구	·고전에 대한 수용과 평가/ ·고전의 재해석/ ·고전을 통한 세계 이해
고전과 국어 활동	·고전과 통합적 국어 활동/ ·고전을 통한 소통과 이해 의 확장/ ·국어에 관한 고전과 국어 문화
고전에 대한 태도	·고전의 지혜와 삶의 성찰/ ·고전 읽기의 태도

2009개정 고전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고전 교과서는 3종⁴⁴⁾이 발간되었는데, 그 내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3> 2009개정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사상

구분	論語							孟子			荀子 榮辱
	學而	爲政	里仁	述而	顏淵	衛靈公	季氏	公孫丑(上)	告子(上)	告子(下)	
천재(김)	2	1	1	1	1	1	1	1			1
해냄(정)								1	4		
교학(한)		4	1					1	2	1	

<표1>과 <표3>을 바탕으로, 제2차 고전 교과서와 2009개정 고전 교과서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

44) 김종철 외, 『고등학교 고전』, 2014, 천재교육; 정민 외, 『고등학교 고전』, 2014, 해냄에듀; 한철우 외, 『고등학교 고전』, 2014, (주)교학사.

작품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세계의 고전으로 확대되었다. 제2차에서 수록된 고전 작품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한정되었으나, 2009개정에서는 인문·사회·과학·예술·문학 등의 세계 고전 작품이 수록되었다. 둘째, 2009개정에 수록된 유학사상은 인간의 본성[仁義禮智]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었다. 제2차는 효가 주요한 내용이었고, 인간의 본성에 관한 내용은 수록되지 않았다. 셋째, 유학사상이 수록되는 방식이 변화되었다. 제2차의 유학 내용은 언해와 원문을 동시에 수록하였다. 그런데 2009개정에서는 원문은 없고 모두 현대어로 된 번역문만 수록되었거나, 유학사상을 소재로 한 집필진의 창작한 글이 수록되었다. 넷째, 현대 사회의 시각에 따라 고전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가치를 재평가하는 활동이 강조되었다. 제2차는 언해나 원문을 바탕으로 국어의 역사적 변천이나 원문 속에 내재된 사상을 파악하는 활동이 중심이었다면, 2009개정에서는 원문을 현대어로 번역한 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활동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2. ‘지금-여기’에서 유학사상의 재평가와 적용

古典은 시대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경험이나 사유 또는 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깨달음이 담겨있다. 우리는 고전에 담긴 선현들의 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판단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⁴⁵⁾

2009개정 고전 교육과정에 따른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의 내용은 크게 사람의 본성, 孝, 겸손과 용기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맹자는 戰國時代의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법으로 王道政治를 주장하였다. 왕도정치는 무력이나 강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도덕적 교화를 통해서 순리대로 정치를 하는 것을 말

45) 2009개정 고전 교육과정

한다. 맹자가 왕도정치가 가능한 이유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性善說을 내세웠다.

이런 일을 가상해 보자. 만약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물로 기어가고 있어 빠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누구나 깜짝 놀라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 구해 주러 달려들 터이다. 일본에 유학을 간 이수현 씨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일을 떠올리면 쉬이 이해가 갈 듯싶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맹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말했다.

차마 모른 척하지 않는 마음이란 따지고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맹자는 이런 마음은 인간이라면 본디 타고나는 바라고 여겼다. 아무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어린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맹자는 사람이 본디 타고난 마음으로,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싫어하는 마음[수오지심(羞惡之心)], 공경하는 마음[사양지심(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시비지심(是非之心)]도 포함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일 따름이다.⁴⁶⁾(밀줄은 필자)

위의 인용문은 『맹자』의 「공손추」上편에 나오는 말로, 제2차 고전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고 2009개정 고전 교과서 3종에 모두 인용된 章이다. 맹자의 四端은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을 가리키는 데, 이는 각각 仁義禮智가 발동되는 실마리[근본]이다. 이러한 인의예지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맹자는 사단을 사람의 사지에 비유하며,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데도 스스로 인의예지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⁴⁷⁾라고 말했다.

46) 이권우,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맹자”」, 『고등학교 고전』, 해냄에듀, 2014, p.152.

47) 한철우 외, 앞의 책, p.31.

고자가 말했다. “인성은 단수(湍水)와 같다.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인성에 선불선(善不善)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에 동서(東西)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맹자가 말했다. “물이 실로 동서의 구별이 없기는 하나 상하의 구별조차 없는 것인가? 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취하(就下)하는 것과 같다. 사람은 불선(不善)한 사람이 없고, 물은 ‘취하’하지 않는 것이 없다. 지금 물을 쳐서 튀어 오르게 하면 사람의 이마를 지나게 할 수 있고, 물을 막아 격하에 거슬러 올라가게 하면 산 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물의 본성이겠는가? 밖으로부터의 세(勢)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사람이 불선을 하게 되는 것도 본성이 밖으로부터의 세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⁴⁸⁾

위의 인용문은 『맹자』의 「고자」上편에 나오는 말로, 고자와 맹자가 본성에 대해 주고받은 말이다. 맹자의 성선설은 당대에 이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본성을 둘러싸고 논쟁했던 상대방은 고자였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고자의 말에, 맹자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이미’ 선한 인간의 본성이 외부의 영향으로 불선할 수 있음을 말한다.

3. 앞의 1, 2를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 보자.⁴⁹⁾

(1)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인간의 본성 및 후천적인 요인과 관련 지어 말해 보자.

(2)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48) 한철우 외, 앞의 책, p.32.

49) 학교 폭력, 청소년들 멍들게 한다. 학교 폭력 또 일어나, 근본적인 대책 필요. 학교 폭력이 또 발생했다. ○○○ 등은 지난 12일, 자신들의 흉을 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인 △△△을 학교 근처 골/소외된 이웃 위해 선행 펼치는 청소년 화제-○○고 이준 학생, 다양한 봉사 활동 펼쳐 주위에 귀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준(17세) 학생의 남다른 봉사 활동이 새해를 맞아 지역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군은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병원 등을 찾다다이며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위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직접 찾아가 공부를 도와주며, 지구촌…(정민 외, 앞의 책, pp.156-157)

보자.

4. 다음 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⁵⁰⁾

사람들이 문득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게 된다면
틀림없이 깜짝 놀라며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갖게 될 것이다.

필요한 이유:

위에 인용된 문제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맹자와 고자, 순자와 로크의 사상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3번의 (1)에는 두 기사문(각주 49)을 읽고 인간의 본성 및 후천적인 요인과 관련짓는 문제이고, (2)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소외된 사람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4번 활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자유(子游)가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효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봉양만을 말하는데, 개화 말과 같은 동물들도 모두 사람이 길러 주고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⁵¹⁾

위의 인용문은 부모를 봉양할 때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교학사(한철우)는 『논어』의 「위정」에서 효와 관련된 다섯 개의 章을 본문 내용으로 발췌 수록하였는데, 학생들에게 효 사상을 읽고 심화 활동으로 논술 과제가 주어졌다.

아래의 글을 읽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나의 생각을 논술하여 보자.⁵²⁾

50) 한철우 외, 앞의 책, p.35.

51) 한철우 외, 앞의 책, p.29.

52) 한철우 외, 앞의 책, pp.82-83.

㉔하루는 심청이 소문을 들으니, 남경 장사 선인들이 십오 세 처녀를 사러 한다고 하였다. …(중략)…심청이 부친을 붙들고 울며 위로하였다. “아버지, 하릴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거니와 아버지는 눈을 떠서 환하게 밝은 세상 보고, 착한 사람을 구하여서 아들 낳고 딸을 낳아 대를 잇고, 불초녀를 생각하지 마옵시고, 오래오래 평안하십시오. 이것도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니 후회한들 어찌하오리까.”
- 작자 미상, “심청전” 중에서

㉕간경화로 생명이 위독한 가장을 위해 어린 딸과 아내가 간과 신장을 동시에 기증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략)…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 망연자실해 있던 부모 앞에 먼저 간 이식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당시 고3 진학을 앞두고 있던 외동딸 박 양이었다. …(중략)…신장과 간을 동시에 이식받은 박 씨는 수차례나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치근 들어서는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에 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 ○○뉴스, 2010.3.16.

㉖보건복지부의 추산으로는 현재 치매 노인은 53만 명이다. …(중략)…치매 치료비 및 간병비 부담도 크지만, 가족은 장기간 계속되는 간병으로 인한 피로와 정상적인 사회생활 포기, 치매 환자의 폭언과 이상 행동에 의한 가정 파괴, 치매 노인의 자살 등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중략)…이 때문에 치매 환자 보호자들은 우울증, 불면증, 폭력적 성향 등으로 정신적 상처를 깊게 입기도 한다.
- ○○일보, 2012.12.30.

1. “논어”에서 말한 효를 바탕으로 하여 ㉔의 ‘심청이’와 ㉕의 ‘박 양’이 한 행동을 평가해 보자.

2. ‘1’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㉕의 글을 읽어 보자. 그리고 현대적 관점에서 올바른 효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논술해 보자.

산업화 이전의 동아시아 윤리학의 중심 개념은 인과 효이다. 인에 뿌리를 둔 효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전 문헌 전반에 깔려있다.⁵³⁾ 그런데 『논어』에서 말한 효의 내용을 현대 사회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논어』의 효는 이미 낡은 덕목으로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논어』에서 가르치는 효와 현대인이 생각하는 효와의 거리는 더 이상 좁혀질

53) 이은봉, 『중국 고대사상의 원형을 찾아서』, 소나무, 2003, pp.145-146.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위의 논술 활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구성된 문제이다. ‘심청이’와 ‘박 양’의 행동을 평가해 보고, 현대적 관점에서 올바른 효 사상을 재해석하는 활동이다.

『순자』에 관한 내용은 2009개정 고전 교과서에 새롭게 수록되었다. 교과서에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에게 있어서 교만한 태도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요, 반대로 겸손하고 겸소한 태도는 창, 칼, 화살 등과 같은 무서운 병기(兵器)라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다.…(중략)…그러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겸손하고 겸소해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세상이 아무리 크고 넓다 해도 마음 놓고 밟 디딜 땅이 없게 된다. 그 너른 땅에 밟 디딜 곳이 없는 것은 땅 자체가 무르거나 기울거나 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밟을 제껴디디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리만큼 몸 둘 곳이 없게 된 원인은 바로 말, 곧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나쁜 말 때문인 것이다.…(중략)…세상에는 개돼지의 용기와 같은 것이 있고, 장사치와 도둑의 용기라는 게 있으며, 소인(小人)의 용기, 군자(君子)의 용기 등 네 가지의 용기를 볼 수 있다.…(중략)…다음,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난폭한 짓을 함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소인의 용기요, 오직 도의(道義)에 살며 도의를 위하여는 권세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이익마저 돌아보는 일이 없으며, 세상 사람이 다 흔들려도 자신만은 끝내 마음 흔들림이 없으며, 죽음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함과 동시에 도의를 굳게 지켜 도의에 죽는, 이것을 곧 군자의 용기라 한다.⁵⁴⁾(밑줄은 필자)

인용된 글은 『순자』의 「영육」에 나오는 말로,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공경스럽고 겸약하는 몸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래야 자신에게 치욕스런 일이 닥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가지의 용기로 개돼지의 용기, 장사치와 도둑용기, 소인의 용기, 군자의 용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4) 김종철 외, 앞의 책, pp.144-145.

(3)다음은 학교 문제를 다룬 소설의 줄거리 일부이다. 이에 대해 순자의 겸손과 진정한 용기의 관점에서 석대에게 필요한 태도와 병태에게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⁵⁵⁾

서울에서 전학 온 병태는 반장 엄석대에게 대항하다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어느 날 우연히 병태는 학급 우등생들이 석대 대신 시험 답안지를 작성해 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병태는 석대의 비리를 고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만다.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줄거리 일부

위의 인용된 문제는 본문 내용인 순자의 겸손과 네 가지 용기를 학습한 다음에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학습활동이다. 학습활동 문제는 소설 작품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유학의 사상을 적용해 보는 활동이다. 오늘날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일도 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소설의 등장인물인 석대와 병태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순자의 겸손과 진정한 용기를 내면화 시키고 있다.

고전은 하나의 고정된 틀을 갖고서 시대의 변천과 무관하게, 그 지위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늘날 유학의 사상이 고전으로 간주되려면 ‘지금-여기’에서 우리들의 해석이 개입되어야 한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해석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의 고전이 새롭게 조각된다.

IV. 결론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에서 우리의 전통 사상으로 계승된 유학사상의 수록 변천과 교육적 함의를 살펴봤다. 국어과 교육에서 유학사상은 단

55) 김종철 외, 앞의 책, p.149.

결과 계승의 부침을 겪었는데,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공포된 이래로 약 36년의 시간이 지난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시 수록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유학사상이 국어 교과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한문 교과의 성립과 한국적인 민족문화의 지향, 그리고 대외적인 유학사상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2009개정 고전 교과서와 제2차 고전 교과서에 수록된 유학사상의 차이점은 첫째, 유학의 좌표가 동아시아에서 세계 속의 고전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제2차에서 ‘孝’ 사상이 강조되었는데, 2009개정에서는 ‘인간의 본성[仁義禮智]’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셋째, 제2차에서 존재의 도덕적 자기수양이, 2009개정에서는 유학사상을 재해석하거나 평가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활동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유학사상이 다시 수록된 원인으로 현대인들의 생활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경제 성장을 제1의 목표로 질주하던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으로 계승되던 여러 가치가 외면되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되었다. 이 시점에서 반인륜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인간성의 회복은 제도권 교육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보인다. 유학에 담겨있는 사상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체제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유학이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철학적 반성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사상으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학의 현대화가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2009개정 고전 교과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유학사상을 재해석하거나 평가하여 ‘지금-여기’에 적용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도권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유학사상을 교과서에 수록해야 할 이유와 그에 따른 유학의 현대화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후속 논문에서 기대한다.

<參考 文獻>

- 문교부, 『고등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단기 4292.
- 문교부, 『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68.
- 김윤경, 『고전』, 문호사, 1968.
- 이용주·구인환, 『고전』, 법문사, 1968.
- 이승녕·남광우, 『고전』, 동아출판사, 1975.
- 이재수·서수생, 『고전』, 일한도서출판사, 1967.
- 임헌도, 『모범고전』, 영지문화사, 196*.
- 김종철 외 4인, 『고등학교 고전』, 천재교육, 2014.
- 정 민 외 14인, 『고등학교 고전』, 해냄에듀, 2014.
- 한철우 외 4인, 『고등학교 고전』, 교학사, 2014.
-
- 김학주 역, 『순자』, 을유문화사, 2002.
- 성백호 역, 『소학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4.
- _____,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5.
- _____,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8.
- 신동준, 『공자의 군자학』, 인간사랑, 2006.
- 이은봉, 『중국 고대사상의 원형을 찾아서』, 소나무, 2003.
- 정출현, 「소학을 통해 읽는 유교문명의 완성과 해체」, 『울곡학연구』 33, 울곡학회, 2016.
- 최진덕, 『인문학, 철학, 그리고 유학』, 청계, 2004.
- 최창현, 「고등학교 문학 교육 형성의 역사적 연구-교수요목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문학 영역 및 문학 과목의 내용 변모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논문, 2015.
- _____, 「교수요목기의 민족문화 형성과 발전 - 국정중등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3, 한민족문화학회, 2016.
- 뚜웨이밍 지음, 정용환 옮김, 『뚜웨이밍의 유학 강의』, 청계, 1999.
- _____, 김태성 옮김, 『문명들의 대화』, 휴머니스트, 2006.

위잉스 지음, 김병환 옮김, 『동양적 가치의 재발견』, 동아시아, 2007.

NCIC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go.kr/>)

Abstract

The history change of Chinese Classics & the Educational impli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Subject - Focusing on Confucian ideas in 2nd, 2009 revision
*Classical Subject / Choi Chang-beom**

The study examines the change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Korean language subject, which is considered to Confucian ideas. In the Korean language subject, traditional Confucian ideas experienced the ups and downs of severance and succession. Confucian ideas was not included from the 3rd Korean language curriculum to 2009 revised curriculum, for approximately 36 years. The reason for this is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ese character in the 3rd curriculum, the orientation of Korean national culture, the change of Confucian values in East Asia, and the introduction of Western value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Then again, there will be a reason why Confucian ideas is included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of the Korean, which has passed 36 years. It was the result of industrialization, which predisposes economic growth. Society has faced inhumane social problems. At this point, the restoration of humanity to tackle inhumane social issues seems to be a pressing task in institutional education. The change in educational values is also a reflection of the education of education and pragmatism.

The Confucian ideas contained in the classic textbooks in 2009 differ from those contained in the second classical textbook. In the second textbook, the teachings of Confucianism are aimed at fostering moral self-discovery based on 'filial piety'. In 2009, the focus was placed on interpreting or evaluating Confucian ideas based on 'human nature'.

In 2015, "Classics" were also selected as optional courses for 2015 revised courses to be applied to high school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pplies to high schools beginning in 2018. In 2015, 'classic reading' was selected as an elective course. In our society, the heritage of tradition in our society is directly related to the modernization of Confucian idea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ctual practice of Confucian ideas in 'Now-

* Assistant Professor of Sangji University / choiral@hanmail.net

Here' presented by the 2009 revised classical textbook will be a clue to the modernization of Confucian ideas.

【Key words】 Confucian ideas, tradition, filial piety, human nature,
modernization of Confucianism

투고일 : 11월 6일, 심사완료일 : 12월 1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